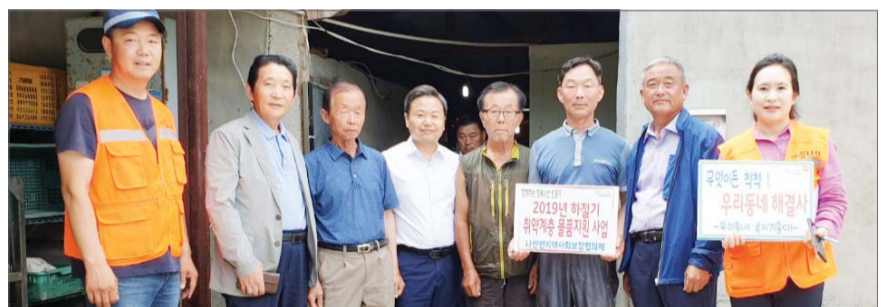


삼양이노켄, 군산에 대규모 증설투자

710억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 증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게 될 글로벌 화학의투기업인 삼양이노켄(주)이 군산자유무역지역에 710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전북도는 7월 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윤동욱 군산부시장, 박순철 삼양사 대표이사, 정연일 삼양이노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양이노켄(주)과 증설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삼양이노켄(주)의 군산 공장 라인 증설 지

원과 투자 및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삼양이노켄(주)은 기존 전라북도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삼양이노켄(주) 생산 공장에 710억원을 투자해 21년 8월 말까지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여명의 지역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이 기대된다.
삼양이노켄은 삼양홀딩스가 2009년 설립해, 2012년 4월에 상업생산에 돌입, 연간 16만톤 BPA(비스페놀-A)를 생산하고 있다.

/전북=봉채영 기자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생활용품을 직접 전달한다.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평군 나산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하절기 생필품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오는 12일까지 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생활용품을 직접 방문·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29개 마을이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주거취약가구 중 면 복지부서 내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에 따라 선별된 총 52개 가구다.

전달물품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제품부터 방충망, 벌레 퇴치기까지 총 57개의 여름철 필수 물품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정천수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혹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소외된 이웃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인천 서구, 아동 30명에 코딩교육 진행

드림스타트-하나금융티아이

인천 서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6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에 위치한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에서 하나금융티아이와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진행했다.
4차 산업과 신기술의 이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한 코딩실습 등으로 구성된 교육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코딩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됐다.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에서 하나금융티아이와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대상으로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 /인천=박종규 기자 jk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8 | 해질 / 19:56

7월 9일 (화) 음력 : 6월 7일

수도권 날씨 33~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32, 동두천 18/33, 가평 17/33, 양평 18/33, 용인 20/33, 평택 19/33, 수원 20/33, 인천 21/31, 파주 18/32, 서울 20/33, 백령도 19/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광역시, 다양성·안정성 담보 新주택 조성

“획일성 상징 성냥갑 아파트 NO”

새로운 주택정책 수립

15년 경과된 아파트 리모델링 25만1000세대, 전체 62% 대상 연말까지 주택통계시스템 구축

편의와 경관적 측면에서 획일성이 최대의 단점으로 꼽혀온 광주시내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더불어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정책은 ▲디자인과 안전이 향상된 공동주택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지은 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현재 아파트 통계뿐 아니라 향후 건립될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 통계시스템 구축 등이다.

첫째, 전편일률적인 디자인의 회색 도시에서 다양성과 차별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설계 지침인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에 상가를 배치하는 연도형 건축계획 반영, 단지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된 공공보행로 확보, 단지 내 동 배치의 다양화, 공동주택 측벽



광주광역시청 전경. /뉴스

및 돌출형 발코니 등을 통한 차별화를 반영한다.

둘째,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아파트는 1082단지 40만3000여세대에 달한다. 이 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단지는 25만1000여세대로 약 62%에 해당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지난 2013년 12월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을 3개 층까지 허용하는 등 관련제도가 정비됐다.

셋째, 기존 아파트를 비롯해 향후 건립될 아파트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통계시스

템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관련 통계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단위의 통계시스템으로 준공된 아파트 등의 주택현황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택수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통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향후 개발 예정인 주택사업 현황까지 관리하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통계시스템 구축은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달 사업을 발주해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자체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전북 “도민 1539명 318억 부실채권 탕감”

전북신보 등 지역금융과 힘 모아 “서민경제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전라북도가 도내 금융권과 손잡고 장기채무로 절망의 빛에 빠져있던 전북도민 1539명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전북도는 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신한중안회 전북지부,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하는 ‘2019 전북 서민경제 희망불씨 살리기’ 빛담감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봉채영 기자

(사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강용구 전북도의 회농산경위위원장, 김윤식 신한중안 회장,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지역금융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전북도민 1539명의 318억원(전북신용보증재단 631명 39억, 신한 전북지부 908명 179억) 상당 부실채권을 탕감했다.

이번 행사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하고, 연체자들은 비인간적인 추심에 시달리며, 연체된 채권 역시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리고 있는 실정에서 빚으로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채무자의 권익 및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하고, 연체자들은 비인간적인 추심에 시달리며, 연체된 채권 역시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리고 있는 실정에서 빚으로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속도

4개 분야 20개 발전전략 마련

전라남도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교육·스포츠·시설·관광 분야 등 20개 전략 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양한 지역 특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다.

우리나라 해양관광 시장은 전체 관

광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1년에 1회 이상 해양관광을 즐기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여가생활과 웰니스 관광을 즐기게 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면서 전남지역 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했다.

전남의 비교우위 천연자원인 섬, 갯

벌, 해안선, 바닷가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 스포츠, 시설, 관광 등 4개 분야 20개 전략이다.

분야별로 교육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의 미래 인력 양성과 수요창출을 위해 전남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요트투어 상품과 초·중·고, 대학생들의 친수 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시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 20개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해양레저 활성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